

의향소창가



[해제]

대략 1920년대 전후에 작자 혹은 필사자를 알 수 없는 『이행소창가』의 이본(異本)으로 보인다. 제목에서 ‘의향’은 작품에 “명산대천 좋은 경치 세세 관광 못하거든 애잔한 여행으로 이향에 출타하여 산동 원근 별구처를 곳곳마다 구경하고”의 구절과 연결하여 ‘이향(異鄉)’에 대한 방언 또는 작자의 고의적 표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목은 자기가 사는 고장이 아닌 타 지방을 관광하는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풀어 내어 후련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이행소창가』와 내용 및 문체가 거의 흡사하다. 다만 『이행소창가』의 전부가 아니라 서사(序詞) 부분만 실려 있고, 후반부에는 어머니가 이씨(李氏)가 문으로 시집간 딸에게 보내는 서간 형태의 <여아리실볼지어다>라는 가사체 작품이 실려 있다. 이 작품은 『이행소창가』와 비교했을 때 특히 ·(아래아) 및 연음현상에 따른 고어식 표현이 훨씬 많다. 그러나 필사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여 해독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이행소창가』의 큰 줄거리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구절단위로 침삭된 경우와 같은 구절일지라도 다른 어휘가 사용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문]

의향소창가

의향소창가

어와외척 노소벗님 이니소회 드러보소
 천지만물 번성흔둥 귀흔바 스람이라
 강뉴귀천 남녀분간 이아니 극분인가
 이잔한 안녀본분 이팔년 심규성장
 타문우귀 삼동법은 성현의 훈계신이
 뉘라셔 면하리요 부모의 톡손앙망
 오복겸전 창성헝그 조녀간 일반니라
 유무복이 가통일니 구로싱아 우리부모
 불초무상 이인야을 녀조즉부 경계말숨
 녀공미스 근검헝고 봉부모 스군조를
 가지가지 조심헝여 타인의목 걸님업시
 평심을 화락헝기 고소지망 헝심이라
 몽미한 심경이나 은스건스 늠흔덕을
 전전헝헝 삭넛더니 조물이 세기턴가
 만스영위 허시로다 지리한 인싱고락
 완명이 부지헝여 창낙가뒤 계후헝야
 죠션봉스 전가헝고 일너길너 톡서헝여

종인부탁 하녀시니 스무여한 이닐년가
빅구광음 훌훌하고 무정세월 양뉴팔라
헛불스 이녀광이 오순이 금년이라
이것저것 다던지요 만스여심 적고인니
촉처의 상심골병 첨상다병 생각하며
스람의 싱스일을 미리알니 뉘잇던고
불망하논 나이데아 심면한제 몇히런고
유슈갓한 일월이라 칠팔년 되엇구나
안받스람 인정성과 디하며 부탁이요
지면으로 오라말가 반갑고 감격하나
저간스 걸님만하 초년폐년 겨영턴바
이달아 저의형데 양년간 왓난고로
빅니장노 험한식티 유관하긔 총양업닉
금횡이 허송하며 하일하시 상봉하리
동싱집 출입하미 타무니라 하마나
우리로 말을하며 진외가도 밀성박시
니외가도 밀성박시 청도산동 복지하야
변화번성 창디문호 방익낙국 일가르니
스족이 바른결닉 친족다음 외족이라
원근니 그이시며 무산허물 기탈이리
을묘중 춘초구일의 숙질남미 동횡으로
디구셔중 드러가니 나날노 변흔물식
쵸화난축 무궁이요 열국인물 구경하니
극목소쵸 참담하니 우리쵸션 숨천강토
하양성 도읍하여 오익년 예악문물
일쵸이 허시되고 왜촉천지 되단말가
전일의 초로왕닉 놀납고 두립더니
금번초횡 반가와르 벽역고흙 가논기초
늑늑비쵸 밋칠소냐 경손점출 총이요
조인점 쵸화로다 석양이 못디여셔
청도싸 여기로다 인후다정 데부양반
교마를 신착하여 이십여리 등경왓셔
피초안부 반긴후이 월식이 명낭하니
황훈니 빅쵸로다 동싱안면 식급하여
흥치로 입승하니 녀전면목 우리형데
상봉하미 쑤이로다
딜부덜 각각보니 신면목이 싯싯하네
암전하신 슈암딕은 초면으로 동기갓치

유정무흠 관곡하네 금일스 심각하니
부너쳐스 가소로다
삼스월경 허여시나 일일지정 이안닌가
형데일신 멈을갈나 동서로 각분하여
일년일초 이년일초 상봉기회 못하온들
지면도 적조하니 동괴철윤 가당인가
십녀연 못뵈와서 총몽하던 외양속계
감회로 문후하니 엄엄하신 존안이요
감감하신 기력이라 잇난동안 조로되와
조모의 미저뉴흔 흐무시터 회하고
영결하직 허려더니 천신니 시그하가
일월이 못다가서 몽익밭 일조간의
역낙고스 되단말가 부상의 스생유명
일장춘몽 가이업셔 무인비스 갈발업셔
다정하신 벗님니들 광후하고 긴착홀스
노소간 부인싼님 유유상존 관관하미
일면너구 탐하닉 가가면면 다과쥬찬
관뒤괄염 불안하고 감스무등 그지업네
전일이 듯던소무 인정풍속 극성흠은
덕히보니 넘치도다
노소로 축일담화 모웃기걸 편당승화
일월이 유수갓고 소일이 선궁일니
춘복춘추 등산님슈 구양속 경망귀요
풍호무우 욱호치이 증점의 영의지라
석마차 삼춘니요
조고로 명현달스 절세로 즐기시니
춘야년 도리현은 니청년의 노림이요
츨월명 적벽강은 소조첨 즐거미라
불출규문 녀조이나 삼춘호절 모라리요
쳐쳐곳곳 유벽승지
소요되 더러가서 역역히 구경하니
창여구호 장한가스 우장하고 쇼설하드
석일의 우리선비 물년의 기척헝초
열친천 화속노림 이마로 흠씨즐거
흥진비리 화담흠은 슝롬므드 일싸르니
변신면 해아리믹 이십년 그 동안이
네작곳 몇히런고 공구지회 식로와라
가당흔 외인니라 위조상의 정각이라

이안니 소동한가

경테요흔 만화정은 안전이 무비경물
송척오동 울밀하고 만화방창 춘광이라
호접이 편편하고 봉황익흑 넘노는덧
식심정 늑모디는 존존한 슈성으로
진금을 소멸하야 흥금을 소멸하야
가려하고 절승홀스 용두소난 천작이요
증손니 기모하다 전후좌우 버린손시
금슈병풍 둘러쳐고 춘전의 구 곡뉴슈
근척니 월뉴로서 장강활슈 디여잇니
천하낙양 화려풍물 말노만 더러더니
청도낙양 구경일니
만고문장 두잠이난 신동성인 음전하고
천년학사 니티척은 식중천주 일너지니
원통하드 우리들도 남조로 천돈하며
송경스셔 문박종스 기명흔 이세계의
각국풍 널낙하야 지명스 기록하며
이러흔 별승지지 현판이나 듀러하어
후일유전 후올거술
가탄일스 부익견문 아노거시 무어신고
날마다 등산님슈 도슈장도 장관일니
편시춘광 무정하야 어느덧 모춘니라
동풍이 머러지고 남풍사월 디단말가
각처의 모힌니긱 초팔일 기히로다
어나곳 지점인고 청산노슈 한요처의
경일망귀 하려하고 장막을 설시하야
즉변한 오로지공 옥반구깁 함폭이요
초초로 디작순빅 장장한초 하일의
금일은 단구로다 녀흥이 미전터가
영민할스 썬님니들 현철흔 창원딕과
단아한 광곡딕과 아람다운 방지딕과
유순부던 한지딕과 영오한 호계딕과
노림창동 권고로서 쥬소로 분쥬하고
활협잇난 소년분니 효우돈목 근본니요
수신제가 정당이라 남이노인 공경일니
디설시 쥬션하어 슈철일 뇌정하고
한쇠난 선창막이 스연광속 후노구나
노소아동 나션길의 녀소부닌 압히셔니

면면니 아람티도 운빈화안 고은조달
월국항아 강이요 언어동지 유순덩헝
티님티스 니도한뎡 안밭스롬 소명조격
만세경거 선후가국 녀운진취 무궁일니
선창습 당두하니 경기도 그이하다
녹음은 울밀하고 방초난 평포한디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슈로다
압히난 평원니요 뒤이논 광야이라
등양의 옥벽하니 세위효진 불입이라
일은바 선경낙지 별유천지 이아닌가
굉장한 노림설창 슈익면 인히둥이
구면도 적지안코 신면도 태반니라
운소잡고 술밭춘니 녹산쥬회 되앗구나
초리잇기 순빅하니 규율이 정당하고
균평한 오로진지 은원니 돈무하니
쥬스하신 년소부니 진평은 슈단인가
믹스 쥬밀함은 노소간 층도하니
환천희지 깃거운가 낭낭흔 우숨소리
우논식 화답하니 남은흥 미미하여
등스님슈 허울적이 풍경이 쇠락하니
형형식식 장관이라
어부의 낙논낙씨 원포이 느껴잇고
목동의 부난젓씨 소등이 도라온다
오불여피 일은말슴 소녘황데 조탄일세
셔손의 지난낙조 압손이 빗쳐잇고
저녁년기 나논곳은 인가도 조밀하다
화도둥 안진몸이 우화등산 되논뎡니
이러한 경치둥이 지란갓한 봉우들아
전호후응 슈창함은 삼싱이 굶밧기라
옥순광음 인간우고 오날와셔 상리하니
우리비록 녀조이나 난정고조 양두할가
좌상을 둘러보이 소일지탄 되논구나
결연흔 늑의형데 동서길 불참일쇠
차옥흔 임시변고 형연귀치 어이하리
몽미밧 금번헝지 쥬불상의 흐조더니
더구나 이노림의 녀식미화 되단말가
황흔니 직촉하니 보보전진 도라올적
쥬일헝낙 미진하여 가다가 도로안조

노소간 모든친구 남은설화 터파하고
 조딜니례 청호오니 님년귀 쇠모지년
 바른결니 외족이라 차례로 인스하니
 면면이 선포돌고 동작이 단아하고
 인스도 관곡하듯 파좌하고 이러느셔
 심보구회 도라보며 강변의 도축하니
 상상이 발근등축 머지려 오논도듯
 전후로 불발키고 발섭하고 거는오니
 이도또한 풍치인가 후일기럼 되리로듯
 만화정 드러오니 쥬인의 성덕으로
 쥬가 낭조하며 늦상늦 버러스니
 미진녀흥 이음인가 영감우조 장할시라
 순철일 야반경식 월도동천 되얏도다
 감손귀가 섬섬더니 운문유락 반가와라
 취미상종 다소벗님 작반하고 가는길의
 박곡동 드러가셔 상고점 구경후후
 디비못 다다르니 흥금이 상활하다
 간관히 월영하니 일벽이 다되엇니
 청신암 드으가니 니고나와 합하고
 숙소로 영접하니 다관을 밧친후의
 석반니 드러온다 정결흔 최소반찬
 기화요초 향니로다 뇌곤니 조심키로
 각각취침 하였더니 난디업난 쉬복소래
 진세년분 식다럿니 조반후 큰절구경
 눈압히 놉흔집은 만세후 두럿하다
 이십팔간 디식당이 웅장함도 웅장하다
 이천년 실나고찰 풍경은 예로이다
 디웅전 바라보니 단청도 회황하다
 서가여리 놉흔존상 몇철년 사적인고
 오익나한 드러가니 놉고나진 텡불들은
 형인이목 되논도다 좌우산천 버린산세
 화기산니 슈려하고 약야기 일흠놉다
 파스진경 처한몸이 극낙세귀 발분덧고
 셔산고락 혁흔마음 운외전천 붓첫도다
 이목이 잠긴뭇슨 멀니서 지점하고
 니원암 약슈이며 북디압황 금슈논
 킷별통치 일흠쫓탕 그남아 황화경치
 오도조 다시나도 일필화모 너럽거든

하물며 천견박식 엇지다 형언허리
달표경영 이구경을 원일견지 허여시나
철영갓흔 축도지라 미리싱각 극난터니
횡동의 흥도와 니왕노릇 이젓도다
문장시스 늬흔즈취 뉴슈장화 완각들도
명스되천 죠흔경을 세세관광 못하거든
이향이 출타허여 산동원근 별구체를
곳곳마다 구경허고 운문거찰 보아시니
왈남타 허리로다 한모소 벗님니여
삼춘삼화 그동안의 지긋지우 탐탐허여
상중담화 소일이며 디소사 작반허여
소창교회 몇번인고 문소년들 인사도리
빙옥지결 흥탄일니 철윤의정 일실상의
딜아들 지극성과 격미가 아쵸업서
시일가물 이저더니 호련히 씩다라믹
석아니스 언지런고
계변의 천스세류 풍전의 청기허고
만손의 두견화는 봉이봉이 반기반소
은년허 춘니식이 적상심회 도우더니
어언간 추풍이라
귀거을 싱각허미 일각이 여츄로다
미봉가절 비스친으 고인이 운하시니
가절이 불원일니 경연경세 울운기람
세스을 돈망허고 오늬식 허뉴타가
이별을 당코보며 니온거시 첨취로다
우리형데 분슈작별 결연타 싱각마라
형우할일 니업사나 너이데공 덧덧허니
원부모 이형데논 녀즈 본분이요
척피기러 첨망함은 원정인스 형이라
다각각 마인몸이 이별을 셤어허니
파스다병 너이기질 부디부디 무병허여
익년허로 동낙허고 뉴즈뉴손 스읍허여
두렷한 노경복낙 극낙으로 지닌다가
슈풍의 녀이허며 상봉정담 허열불가
형데중별 참담흔둥 치우정분 낙막허데
슬푸다 존소벗님
체우신조 우리봉창 쳐음잇고 후기업서
도라가 싱각허며 그동안 즐긴일은

침상편시 춘몽되고 조흔가절 덕을따라
춘풍도리화 기야며 추우오동 엽낙시에
각곳의 헛튼회포 어이하여 안심하리
추천의 쓴기력이 항을지어 나아가며
지점하고 창망한들 호스니 똥똥하니
어디로 지향하여 회포을 붓쳐보리
명월이 낭낭하며 동괴이형 암암하고
청풍이 소소하며 벗님싱각 간절한덧
아모려나 인후소만 화손의 동똥하여
미스전 불망하고 풍쳐라도 잇거들낭
셔신으로 반겨볼가
곳을히 오월순삼일

여아리실볼지어다
잇씨가 어느씨고 상원중춘 호시절의
황봉역발 너히방연 씨맛추어 호게는다
이력전한 너어미는 세스를 전납하고
분녀직분 소멸하야 처소로 정히하고
노유동낙 즐겨다가 창밧글 닉다라셔
춘경을 완상하니 두견화 만발하고
불식이 순화한디 이리저리 비회하며
석식을 고렴하니 흥회가 상반이라
역역히도 식롭더니 너보나기 단정하야
일반층 겸회로다
아히야 드럿셔나 네연게 십구식느

[현대역]

의향소창가

의향소창가

아!외척(外戚) 노소(老少)벗님 나의 소회(所懷) 들어보소
 천지만물(天地萬物) 번화번성(繁華繁盛) 귀한바 사람이라
 강유귀천(剛柔貴賤) 남녀분간(男女分揀) 이아니 그뿐인가
 애잔한 아녀자본분 이팔년 심규(深閨)1 성장(成長)
 타문우귀(他門于貴) 삼종법(三從法)2은 선현(先賢)의 훈계(訓戒)이니
 누라서 면하리요 부모의 태산앙망(泰山仰望)3
 오복겸전(五福兼全)4 창성(昌盛)하기 자년간 일반이라
 유우복(有無福)이 가통(家統)이라 구로생아(劬勞生牙)5 우리부모
 불초무상(不肖無想) 나에게 여자본분 경계말씀
 여공매사 근검하고 봉부모(奉父母) 사군자(事君子)를
 가지가지 조심하여 타인이목(他人耳目) 걸림없이
 평생을 화락(和樂)하고 고소지망(高所志望)6 하심이라
 몽매(蒙昧)한 심경이나 은사근사(隱事勤事)7 높은 덕을
 전전(輾轉)하고 삭였더니 조물이 시기하는가
 만사영위 허사(虛事)로다 지리한 인생고락(人生苦樂)
 완명(頑命)8이 부지(扶持)하여 창낙가뉘 겨우하여
 조선봉사(祖先奉祀)9 전가(傳家)하고 일러길러 택서(擇壻)10하여
 종인(從人)11부탁 하였으니 사무친한 있을까
 백구광음(白駒光陰) 훌훌하고12 무정세월 양뉴말라
 아별사 이연광(年光)13이 오순(五旬)14이 금년이라
 이것저것 다던지고 만사여생(萬死餘生)15 적고있으니
 촉처(觸處)16에 상심골병 침상다병 생각하며
 사람의 생사(生死)일을 미리알이 누구던가
 잊지못할 나의동생 상면(相面)한지 몇 해던가
 유수(流水)같은 세월이라 칠팔년 되었구나
 안밖사람 인정성과 대하여 부탁이요
 지면(紙面)으로 오라는말 반갑고 감격하나
 저간사 걸림 많아 차년피년 미루다가
 이즈음 우리형제(兄弟) 양년(兩年)간 찾아와서

백리장로(百里長路) 험한세태 유관(遊觀)하기 측량(測量)없네
 금번행차 허송하면 하일하시 상봉하리
 동생집 출입함이 타문(他門)17이라 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진외가(陳外家)18도 밀성박씨(密城朴氏)19
 내외가도 밀성박씨(密城朴氏) 청도산 동쪽 복지(卜地)20하여
 변화번성 창대문호(暢大門戶)21 방외낙국(方外樂國)22 세우더니
 사족(士族)의 바로결에 친족다음 외족이라
 원근이 그있으며 무슨허물 기탄(忌憚)23할까
 을묘(乙卯)24년 춘초구일(春初九日)에 숙질남매(叔姪男妹)25 동행하여
 대구(大邱)로 들어가니 나날이 변한물색
 조화난측(造化難測)26 무궁이요 열국인물(列國人物)27 구경하니
 곡목 소소(蕭條)28 참담하여 우리조선 삼천강토
 한양성(漢陽城) 도읍하여 오백년 예악문물이
 일조에 허사되고 외측천지(外側天地) 되단말인가
 전일에 이러한 왕래(往來) 놀랍고 두렵더니
 금번 초행(初行) 반가워라 벽역고함 가는기차
 나는비록 밋칠손가 경산(慶山)29점출 참이요
 자인점 주화로다 석양이 못되어서
 청도(淸道)30땅 여기로다 인후다정(多情) 제부(弟夫)양반
 교마(轎馬)31를 신칙(申飭)32하여 이십여리 중경(中徑)와서
 피차안부 반간후에 월색이 명랑(明朗)하니
 황혼이 백주(白晝)로다 동생안면 시급하여
 흥치(興致)로 입승(入勝)하니 여전면목 우리형제
 상봉함이 꿈이로다
 질부(姪婦)들 각각보니 새얼굴이 서먹하네
 암전하신 수암댁은 초면으로 동기(同氣)같이
 유정물음 관곡(款曲)33하네 오늘와 생각하니
 부녀되어 가소(可笑)로워
 삼사월경 하였으나 일일지정 이아닌가
 형제일신(兄弟一身) 몸을갈라 동서로 각각나뉘어
 일년일까 이년일까 상봉기회 못얻고
 지면(紙面)34도 적조(積阻)35하니 동기천륜(天倫) 가당한가
 십여년 못보어서 참망(僭妄)36하던 외양(外樣)속에
 감회로 문후하니 엄엄하신 존안(尊顏)37이요
 강강(康強)38하신 기력이라 있는동안 자주모여
 자모에 미진유한 흐뭇하게 털어내고
 영결(永訣)39하직 하렸더니 천신(天神)이 시기한가
 한달이 못다가서 몽매(夢寐)40밖 하루아침에

영낙고사(古事)41 되단말인가 부생(浮生)42의 사생유명
일장춘몽 가이없어 무인비사 갈바없어
다정하신 벗님내들 관후(寬厚)하고 긴착(緊着)43하다
노소간 부인과딸 유유상종 관간(觀觀)함이
일면여구(一面如舊)44 탐하네 각각얼굴 다과주찬(茶菓酒饌)45
관뒤괄염 불안하고 감사하기 그지없네
전일(前日)에 들던소문 인정풍속 극성(極盛)함은
대해보니 넘치도다
노소간 축일담화(逐日談話)46 모웃개걸47 편당승화(偏黨昇華)
세월이 유수같고 세월보냄 선궁(仙宮)일네
춘복춘수(春服春愁)48 등산님수 구양수(歐陽脩)49의 경망귀요
풍회무우(風懷無憂)50 하려함은 증점(曾點)51의 영의재라
때마침 삼춘(三春)이라
자고로 명현달(名顯達)은 사절서(四節序)를 즐기시니
춘야연(春夜宴) 도리원(桃李園)52은 이청연(李靑蓮)53의 놀음이요
추월명(秋月明) 적벽강(赤壁江)은 소자침(蘇子瞻)54의 즐김이라
불출규문(不出閨門)55 여자이나 삼춘호절(三春好節) 모르리요
곳곳마다 유벽승지(有碧勝地)56
소요대57 들어가서 역역(歷歷)58히 구경하니
창여구호 장한가사 웅장(雄壯)하고 소설하다
옛날의 우리선비 말년(末年)의 기척행차
모든친척 화수(和酬)59놀음 이렇게 함께즐겨
흥진비래 화답함은 사람마다 똑같으니
변신면 헤아리며 이십년 그동안에
예작곳 몇해인가 감구지회(感舊之懷)60 새로워라
가당한 위인이라 위조상에 정각이라
이아니 소중한가
경치좋은 만화정은 안전(眼前)에 무비경물
송백오동 울밀(鬱密)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61 춘광이라
호접(胡蝶)이 편편하고 봉황백학(鳳凰白鶴) 넘나드는 듯
세심정 육모대는 잔잔한 수성(水性)으로
진금(塵襟)을 소멸하여 흉금(胸襟)이 시원하니
가려(佳麗)62하고 절승(絶勝)63하다 용두소는 천작(天作)이요
주산이 기묘하다 전후좌우 벌린 산세(山勢)
금수병풍 둘러치고 촌전의 구곡유수
백리남짓 흘러들어 장강활수(長江活水)64 되어있네
천하낙양(天下洛陽)65 화려풍물 말로만 들었더니
청도낙양(靑道洛陽) 구경이로다

만고문장 두자미(杜子美)66는 시중성인 음전하고
 천년학사 이태백(李太白)67은 시중천자라 하였으니
 원통하다 우리들도 남자(男子)로 태어났으면
 삼경사서(三經四書)68 문박종사 개명(開明)한 이세계에
 각국풍도(各國風道) 열락하고 지명사 기록하며
 이러한 별승지(別勝地)69에 현판이나 두려하여
 후일에 유전(遺傳)하리
 가탄일사 부의견문(見聞) 아는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등산님수 도수장도 장관이라
 편시춘광(片時春光) 무정하여 어느덧 모춘(暮春)이라
 동풍이 멀어지고 남풍사월(南風四月) 되었는가
 각처에서 모인손님 초파일(初八日)을 기리로다
 어느곳을 정했는가 청산녹수 있는 곳에
 경일망귀(頃日望歸)70 하려하고 장막(帳幕)을 설치하여
 즉변한 오로지공 옥반구경 하였으며
 차차로 대작순배(對酌巡杯)71 장장한 초하일에
 오늘은 단구(短晷)72로다 남은흥이 미진턴가
 영민(英敏)하네 따님네들 현철(賢哲)한 창원덕과
 단아(端雅)한 광곡덕과 아름다운 방지덕과
 유순부덕(柔順婦德)73 한재덕과 영오(穎悟)74한 호계덕과
 노림창동 권고로서 주소(晝宵)75간 분주하고
 활협잇는 소년분네 효우돈목(孝友敦睦)76 근본이요
 수신제가 정당이라 남의노인 공경하네
 치설시 주선하여 순철일 내정하고
 어느곳의 장막이 사연광속 하는구나
 노소아동 나선길에 여소부인 앞에서니
 면면이 아름다워 운빈화안(雲鬢花顏)77 고운자질
 월국항아(月國姮娥)78 하강이요 언어동지 유순정행
 태님태사 내도(來到)한듯 안박사람 소명자격
 만세경거 선호가국 여운진취(餘韻眞趣) 무궁하네
 선창숲 당도하니 경개(景概)도 기이하다
 녹음은 울밀하고 방초는 평포(平鋪)79한대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로다
 앞에는 평원이요 뒤에는 광야로다
 중앙이 푸르르니 세위효진 불입이라
 이른바 선경낙지 별유천지(別有天地) 이아닌가
 굉장한 노림설창 수백명 인해중에
 구면도 적지않고 신면도 태반이라

소매잡고 술받치니 육산주해(肉山酒海)80 놓였구나
 차례잇기 순배하니 규율이 정당하고
 균형한 오로진지 은원(恩怨)이 돈무하니
 주사하신 젊은사람 진평은 수단인가
 매사에 주밀(周密)함은 노소(老少)간 한층더하니
 환천희지(歡天喜地)81 즐거운가 낭낭(朗朗)82한 웃음소리
 우는새 화답하니 남은흥 미미하여
 등산님수 하올때에 풍경이 쇠락(衰落)83하니
 형형색색(形形色色) 장관(壯觀)이라
 어부의 남은낙숫대 원포(園圃)84에 늦어있고
 목동의 부는피리 소등에 돌아온다
 오불여피 이른말씀 소열황제(昭烈皇帝)85 자탄일세
 서산에 지는낙조(落照) 앞산에 비쳐있고
 저녁연기 나는곳은 인가도 조밀(稠密)하다
 화도(畵圖)86중 앓은몸에 우화등선(羽化登仙)87 되는듯이
 이러한 경치중의 지란(芝蘭)88같은 봉우들아
 전호후응(前號後應) 수창(酬唱)89함은 삼생(三生)90의 꿈밖이라
 우순광음 인간세상 오늘와서 상대하네
 우리비록 여자이나 난정고사(蘭亭古事)91 양두(讓頭)92할까
 앓은자리 둘러보니 소일지탄(消日之嘆) 되는구나
 결연한 나의형제 동서길 불참일세
 차악한 임시변고 형언귀치 어이하리
 뜻밖의 금번행차 잠불상에 하자더니
 더구나 이놀음에 여식매화 되었는가
 황혼이 재촉하니 보보전진(步步前進)93 돌아올때
 종일행락 미진하여 가다가 도로앉아
 노소간 모든친구 남은정담 이야기하고
 자질내례(子姪來禮)94 청하오니 나의연기(年紀) 쇠모지년
 바른쪽에 외족이라 차례로 인사하니
 면면이 선풍도골(仙風道骨)95 동작은 단아하고
 인사도 관곡(款曲)96하다 파좌(坡坐)하고 일어나서
 십보구회 돌아보며 강변에 도착하니
 생생이 밝은등축 맞이하러 오는구나
 전후로 불밝히어 발섭(跋涉)97하고 건너오니
 이도또한 풍치인가 후일기억 되리로다
 만화정 들어오니 주인의 성덕(盛德)98으로
 주효(酒肴)99가 낭자(狼藉)100하며 윗생육(生肉) 먹었으니
 미진여흥 이음인가 영감우조 생겨나네

순칠일 야반경색 달은중천에 떠있도다
 감산귀가 섭섭더니 운문 유람(遊覽) 반가워라
 취미상종 다소벗님 작반(作伴)101하고 가는길에
 박곡동 들어가서 사기점(沙器店)102 구경한후
 대비못 다다르니 흥금이 시원하다
 간관히 월영(月影)103하니 일역(日域)104이 다 되었네
 청신암 들어가니 이고나와 합장(合掌)하고
 속소로 영접하여 다과를 마친 후에
 석반이 들어온다 정결한 채소반찬
 기화용초(琪花瑤草) 향이로다 피로가 점점심해
 각각취침 하였더니 난데없는 쇠북소리
 진세(塵世)연분 깨달았네 조반후 큰절구경
 눈앞에 높은집은 만세후 뚜렷하네
 이십팔간 대식당이 웅장(雄壯)하고 웅장하다
 이천년 신라고찰 풍경은 그대로다
 대웅전 바라보니 단청(丹青)105도 휘황(輝煌)106하다
 석가래(釋迦來)107 높은존상 몇천년 사적인가
 오백나한(五百羅漢) 들어가니 높고낮은 탕불들은
 형인이목(形人耳目) 되는구나 좌우산천 벌린형세
 화개산이 수려(秀麗)하고 약야개 이름높다
 파사진경(破邪進慶)108 처한몸이 극낙세계 발분턴고
 세간고락(世間苦樂) 헛된마음 하늘끝에 부쳤도다
 이목109이 잠긴못을 멀리서 지점(指點)110하고
 견훤(甄萱)111의 높은성곽 가까이서 바라보네
 내원압약 쉬우며 북대압 황금수는
 백별통치 이름좋다 그나마 황하경치
 오도자 다시나도 일필화모 어렵거든
 하물며 천변박식(淺辯博識) 어찌형언 다하리오
 달포112경영(經營) 이구경을 원하는날 보았으나
 천령(薦靈)113같은 축도지라 미리생각 극난터니
 일행중에 흥을돈아 내왕(來往)함이 이럴도다
 문장시사 높은자취 유수쟁화(流水爭話)114 완객(玩客)115들도
 명산대천 졸은경치 세세(細細)관광 못하거든
 애잔한 여행으로 이향(異鄉)116에 출타하여
 산동원근 별구처(別區處)117를 곳곳마다 구경하고
 운문거찰 보았으니 완남타 하리로다
 한흠소 벗님내여 삼춘삼하(三春三夏) 그동안에
 지기지우(知己之友)118 탐탐(耽耽)하여 상종담화 소일이며

대소사 작반(作伴)119하여 소창(消暢)120기회 몇번인가
 문소년들 인사도리 빙옥지결(氷玉至潔)121 흥탄일네
 천륜(天倫)의정 일실상에 질아들 지극성관
 객미가 아주없어 세월감을 잊었더니
 흘연이 깨달았네 지난날이 언제런가
 계변(溪邊)의 버드나무 바람앞에 청개(靑蓋)122하고
 만산의 두견화(杜鵑花)123는 봉마다 만개반소(滿開半燒)124
 은연(隱然)간 봄의색이 적상심회(積傷心懷)125 만들더니
 어언간 추풍이라
 귀가(歸家)를 생각함에 일각이 여추(如秋)로다
 매봉가절(佳節) 뵈는사친(事親) 고인이 이르시니
 가절이 불원이네 경연경세 올운기남
 세사를 돈망하고 오륙색 한유(閒遊)하다
 이별을 당해보니 내가온것 처음이로다
 우리형제 분수작별(分手作別)126 결연타 생각마라
 형이한일 내없으나 아우의공 떳떳하니
 원부모 두형제는 여자의 본분(本分)이요
 적피강혜 침망(瞻望)함은 원정인사 형이라
 다각각 매인몸이 이별을 서러워하니
 파사다병(破邪多病) 너의기질 부디부디 무병하여
 백년해로 동락하고 유자유손 사업(事業)127하여
 뚜렷한 노경복낙 극락으로 지내다가
 순풍이 여의하면 상봉정담(相逢情談)128 하여볼까
 형제작별 참담한중 친우(親友)정분 낙막하네
 슬프다 우리벗님
 천우신조(天佑神助) 우리봉착(逢着)129 처음 있고 후기없어
 돌아가 생각하면 그동안 즐긴일은
 침상편시(沈床片時) 춘몽되고 졸은가절 때를따라
 춘풍도리화(春風桃李花) 피워내며 추우오동 엽낙시(葉落時)에
 각곳의 헛된회포 어이하어 안심하리
 추천(秋天)에 나는기러기 항(行)을 지어 날아가며
 지점(持點)하고 창망(滄茫)130한들 호산(胡算)131이 중중(重重)하네
 어디로 지향(指向)하여 회포를 뚫쳐볼까
 명월이 낭랑(朗朗)132하며 의형이 암암하고
 청풍이 소소(疎疎)133하면 벗님생각 간절할듯
 아무려나 인후소망(仁厚所望) 화산에 중맹(重盟)하여
 미사전 불망하고 풍치라도 있거들랑
 서신으로 반겨볼가

곳을히 오월순삼일

여아리실볼지어다

이때가 어느때이고 상원중춘(上元仲春) 호시절(好時節)에

황봉역발 너의방년(芳年) 때맞추어 호게난다

애력전한 네어미는 세사를 전입하고

부녀(婦女)직분 소멸하여 처소로 정회하고

노유동낙(老幼同樂) 즐기다가 창밖을 내다라서

춘경을 완상(玩賞)¹³⁴하니 두견화 만발하고

봄색이 순화한대 이리저리 배회하며

석색을 고렴(顧念)¹³⁵하니 흥회(興懷)가 상반이라

역역히도 새롭더니 너보나게 단정하여

일반층 경회로다

아해야 들었는가 너의나이 십구세이나

[각주]

- 1) 심규(深閨) : 여자가 기거하는 깊숙하게 들어앉은 방이나 집.
- 2) 삼종법(三從法) : 삼종지의(三從之義)
- 3) 태산앙망(泰山仰望) : 부모님의 은덕이 태산처럼 높아 자식들은 이를 항상 우러러봄.
- 4) 오복(五福) :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 복.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을 이룸.
- 5) 구로생아(劬勞生牙) : 나를 낳아 기르는 부모님의 수고.
- 6) 고소지망(高所志望) : 높은 곳을 뜻하여 바람.
- 7) 은사근사(隱事勤事) : 숨겨두고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에 힘을 씬.
- 8) 완명(頑命) : 죽지 않고 모질게 살아 있는 목숨.
- 9) 조선봉사(祖先奉祀) : 조상님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0) 택서(擇壻) : 사윗감을 고름.
- 11) 종인(從人) : 시종드는 사람.
- 12) 훌훌 : 재빨라서 붙잡을 수가 없음.
- 13) 연광(年光) : 나이.
- 14) 연광오순(年光五旬) : 나이가 오십에 이룸.
- 15) 만사여생(萬死餘生) : 꼭 죽을 고비를 면하여 살게 됨.
- 16) 촉처(觸處) : 가서 부딪치는 곳.
- 17) 타문(他門) : 다른 성씨.
- 18) 진외가(陳外家) : 아버지의 외가.
- 19) 밀성(密城) : 현재의 밀양. 밀양박씨.
- 20) 복지(卜地) : 복거(卜居), 좋은 땅을 찾아서 살 곳을 정함.
- 21) 창대문호(暢大門戶) : 드나드는 문이 크게 열림.
- 22) 방외낙국(方外樂國) : 세속 밖의 좋은 나라
- 23) 기탄(忌憚) : 꺼리거나 어려워 함.
- 24) 을묘(乙卯) : 작품의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干支로 서기 1915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 25) 숙질남매(叔姪男妹) : 숙질은 아저씨와 조카. 오촌 남매.
- 26) 조화난측(造化難測) : 천지자연의 이치를 감히 헤아리기가 어려움.
- 27) 열국인물(列國人物) : 여러 나라의 인물.
- 28) 소조(蕭條) : 호젓하고 쓸쓸함.
- 29) 경산(慶山) : 대구에 연접한 지명.
- 30) 청도(淸道) : 대구 인근의 지명.
- 31) 교마(轎馬) : 가마와 말.
- 32)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 삼가게 함.
- 33) 관곡(款曲) : 정답고 친절함.
- 34) 지면(紙面) : 편지.
- 35) 적조(積阻) : 오랫동안 소식이 막힘.
- 36) 참망(僣妄) : 참람하고 망령됨, 분수를 모르고 건방짐.

- 37) 존안(尊顏) : 상대의 얼굴.
- 38) 강강(康強) : 몸이 건강하고 굳셈.
- 39) 영결(永訣) : 영원한 이별.
- 40) 몽매(夢寐) : 잠을 자면서 꿈을 꿈.
- 41) 영낙고사 : 틀림없이 옛일이 됨.
- 42) 부생(浮生) : 덧없는 인생.
- 43) 긴착(緊着) : 긴요하고 절실함.
- 44) 일면여구(一面如舊) : 처음 만났으나 오래 사귄 것처럼 친밀한 경우.
- 45) 다과주찬(茶菓酒饌) : 다과와 술과 안주.
- 46) 축일담화(逐日談話) : 날마다 이어지는 이야기.
- 47) 모웃개걸 : 옷놀이.
- 48) 춘복춘수(春服春愁) : 봄날의 시름.
- 49) 구양수(歐陽脩) : 중국 북송 때의 시인 학자, 호는 취옹(醉翁).
- 50) 풍회무우(風懷無憂) : 풍치있는 정회 때문에 근심이 사라짐.
- 51) 증점(曾點) : 공자의 제자, 증참의 아버지.
- 52) <춘야연 도리원 서(春夜宴 桃李園 序)> : 이백의 시 제목.
- 53) 이청연(李靑蓮) : 성당 때의 시인 이백, 자는 태백,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
- 54) <赤壁賦> : 소동파(소자첨)가 임술년 가을 7월 기망일(16일)에 손님과 적벽 아래 배를 띄우고 놀았다는 내용의 문장.
- 55) 불출규문(不出閨門) : 문을 굳게 닫고 나아가지 않음.
- 56) 유벽승리(有碧勝地) : 푸르름 가득한 아름다운 경치.
- 57) 소요대 : 누정의 이름인 듯.
- 58) 역력(歷歷) : 또렷하고 분명하게.
- 59) 화수(和酬) : 남이 보내온 시나 노래에 화답하여 다시 보냄.
- 60) 감구지회(感舊之懷) : 지난 날을 생각하는 회포.
- 61) 만화방창(萬化方暢) : 따뜻한 봄날에 온갖 물건이 나서 자람.
- 62) 가려(佳麗) : 자연의 풍경 등이 아름답고 새뜻함.
- 63) 절승(絶勝) : 경치가 아주 뛰어나게 좋음.
- 64) 장강활수(長江活水) : 넓고 큰 강에 흐르는 물.
- 65) 낙양(洛陽) : 중국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도시.
- 66) 두자미(杜子美) : 두보(杜甫), 이백과 더불어 성당의 최고 시인.
- 67) 이태백(李太白) : 이백.
- 68) 삼경사서(三經四書) : 시경, 서경, 역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 69) 별승지(別勝地) : 특별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
- 70) 경일망귀(頃日望歸) : 지난 날로 다시 돌아가고자 함.
- 71) 대작순배(對酌巡杯) : 술자리에서 술잔을 차례대로 돌림.
- 72) 단구(短晷) : 짧은 해, 짧은 낮.
- 73) 유순부덕(柔順婦德) : 부녀자로서 지녀야 할 유순하고 어지러운 덕행.

- 74) 영오(穎悟) : 총명하고 이해가 빠름.
- 75) 주소(晝宵) : 밤낮.
- 76) 효우돈목(孝友敦睦) :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동기간의 우애가 돈독하여 화목함.
- 77) 운빈화안(雲鬢花顏) :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 78) 월국항아(月國姮娥) : 달나라의 선녀.
- 79) 평포(平鋪) : 평평하게 퍼 놓음.
- 80) 육산주해(肉山酒海) : 고기가 산을 이루고 술이 바다를 이룸.
- 81) 환천희지(歡天喜地) :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
- 82) 낭랑(朗朗) : 소리가 매우 맑고 또랑또랑함.
- 83) 쇠락(衰落) : 말라 떨어짐.
- 84) 원포(園圃) : 과수나 채소 따위를 심는 밭.
- 85) 소열황제(昭烈皇帝) : 촉한의 제1대 황제로 즉위했던 유비를 이룸.
- 86) 화도(畵圖) : 여러 종류의 그림을 통틀어 이룸.
- 87) 우화등선(羽化登仙) : 도교에서 사람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감을 이룸.
- 88) 지란(芝蘭) 지초와 난초, 지란지교 : 벗 사이의 맑고 높은 사귄.
- 89) 수창(酬唱) : 시가를 읊어 서로 주고 받음.
- 90) 삼생(三生) : 불교에서 이르는 전생(前生), 금생(今生), 후생(後生).
- 91) 난정고사(蘭亭古事) : 왕희지의 <蘭亭序>에 이르기를 "봄에 난정에서 사악한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 목욕재계를 한다"라고 하였음.
- 92) 양두(讓頭) : 지위를 남에게 물려줌.
- 93) 보보전진(步步前進) :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
- 94) 자질내례(子姪來禮) : 아들과 조카가 예를 갖추고 옴.
- 95) 선풍도골(仙風道骨) : 선인의 풍모와 도사의 골격이란 뜻으로 남달리 뛰어난 풍채를 이룸.
- 96) 관곡(款曲) : 매우 정답고 친절함.
- 97) 발섭(跋涉) : 산을 넘고 물을 건너다는 뜻으로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님.
- 98) 성덕(盛德) : 크고 높은 덕.
- 99) 주효(酒肴) : 술과 안주.
- 100) 낭자(狼藉) : 물건 따위가 마구 흩어져 있어 난잡함.
- 101) 작반(作伴) : 길동무로 삼음.
- 102) 사기점(沙器店) : 사기그릇을 구워 만드는 곳. 사기전.
- 103) 월영(月影) : 달의 그림자.
- 104) 일역(日域) : 태양이 비치는 곳이라는 뜻으로, 왕이나 황제의 치덕이 미치는 나라 또는 천하.
- 105) 단청(丹青) : 궁궐이나 사찰 등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림.
- 106) 휘황(輝煌) : 눈부시게 빛남.
- 107) 석가래(釋迦來) : 석가모니 여래의 줄임.
- 108) 파사진경(破邪進慶) : 사악한 생각을 떨치고 좋은 일을 맞이함.
- 109) 이목 : 용이 되려다 못 되고 물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큰 구렁이, 곧 이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
- 110) 지점(指點) :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임.

- 111) 견훤(甄萱) : 후백제의 초대 왕.
- 112) 달포 : 한 달 이상이 되는 동안.
- 113) 천령(薦靈) : 불교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구제하고자 재(齋)나 불공을 올리는 일.
- 114) 유수쟁화(流水爭話) : 유창한 말솜씨로 논쟁을 함.
- 115) 완객(玩客) : 세상 일을 이야기 하며 즐기는 사람들.
- 116) 이향(異鄉) : 낯선 고향, 타향..
- 117) 별구처(別區處) : 특별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
- 118) 지기지우(知己之友) : 자기를 잘 알아주는 참다운 친구.
- 119) 작반(作伴) : 길 동무로 삼음.
- 120) 소창(消暢) : 답답한 마음을 풀어 후련하게 함.
- 121) 빙옥지결(氷玉至潔) : 얼음이나 옥처럼 맑고 깨끗하여 아무 티가 없음을 비유.
- 122) 청개(淸蓋) : 푸르름으로 덮여 있음.
- 123) 두견화(杜鵑花) : 진달래꽃.
- 124) 만개반소(滿開半燒) : 붉은 꽃이 활짝피어 불에 타는 듯함.
- 125) 적상심회(積傷心懷)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근심.
- 126) 분수작별(分手作別) : 서로 악수하고 헤어짐.
- 127) 사업(事業) : 대를 이음.
- 128) 상봉정담(相逢情談) : 서로 만나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눔.
- 129) 봉착(봉착) : 맞닥뜨림.
- 130) 창망(滄茫) : 넓고 멀어서 아득함.
- 131) 호산(胡算) : 중국에서 수효를 기록할 때 썼던 부호.
- 132) 낭랑(朗朗) : 빛이 매우 밝음.
- 133) 소소(蕭疏) : 가끔 드문드문 일어남..
- 134) 완상(玩賞) : 즐겨 구경함.
- 135) 고렴(顧念) : 남의 허물을 덮어줌.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